

국감서 카카오 사태 질타...이종호 장관 “국민께 사죄”

유감 표명에 그치지 정청태 위원장 사과하라 지적에 고개 숙여
국회 과기방송통신위...“무료 서비스 가입자 보상 제외 안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8일 국감상장에서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국감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과기부의 책임과 대책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고, 이 장관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긴급 현황 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약 95% 수준까지 복구됐고, 카카오톡·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유감’ 표명에 그치지 정청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보았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셔야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는 인사말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 위원장의 질책을 받고 머쓱한 웃음을 보이다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는 정 위원장

의 거듭된 지적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아무리 교수 출신이고,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오늘 여기서 사과하는 것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국민께 사과하는 자리니 기회를 드리겠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지적을 받은 이 장관은 “이번 부가 통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른 위원들도 이번 화재 사태와 대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변재일(민주당) 의원은 “피해보상 대상자에서 무료 서비스 가입자는 제외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통신 사업자가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입을 추가했는데 무료 서비스 가입자라고 보상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가 무리하게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적어도 국가 기반 시스템과 직결된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에서 처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났고, 거기에 물을 뿌렸다”며 “이번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공조 장치가 돼 있었는지도 과기부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천재지변, 전쟁까지도 예상해서 새로운 콘셉트,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달라져야 한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재난관리 기본 대상에 부



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입장 재확인
국민의힘 성일중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가 통신사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한 회사가 전체 독점하는 것도 방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 갔을 때는 이산화탄소로 불을 끄는 장치가 구축돼 있었는데, 그게 화재를 진압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법률에 어긋나는지와 책임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검찰, 서욱 전 장관·김홍희 전 청장 구속영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서훈·박지원 소환조사 전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회동)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검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즉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물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는 것이 감사원 결론이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보고회에서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첩보들을 짜 맞추는 그런 회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준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졸지 말라”... ‘中 박물관 전시’ 저자세 대처 질타

국회, 국립중앙박물관 국감 “논쟁 될 만한 유물 빼고 보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중국 국가 박물관의 ‘고구려·발해 제의 한국사 연표 전시’ 논란과 관련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중국 국가박물관장에 게 보낸 서신을 공개하면서 “(연표를) 즉시 수정하거나 전체를 삭제하라고 보냈다”며 “중국에서 연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할 계기를 중앙박물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놓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애초에 공동기획전에 고구려·발해 유물을 보내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많은 분이 ‘중국을 대단히 의식해서 굳이 현지에서 논쟁이 될 만한 유물을 빼고 보냈다’ (고 한다). 지레 논쟁을 의식해서 이렇게 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건 단순한 문화재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북통일이 되면 국경 문제와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졸지 말아라. 덩치가 크다고 힘 자랑을 하면 힘으로 망한다”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당당하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현 의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중국의 출입국 통제를 이유로 호송관을 파견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귀중한 문화재를 안 보냈어야 한다”며 “중국한테 ‘호송관 없이는 못 간다’고 배짱을 부렸어야 한다. 자존심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